

臟腑辨證에 의한 臨床的 考察

羅昌洙*, 張敬善*, 申榮日*, 金貞相*, 黃祐準**

ABSTRACT

A clinical study according to Jang-Bu-Peon-Zheng(臟腑辨證)

A clinical study, related the treatment of Jang-Bu-Peon-Zheng(臟腑辨證), was done in 248 cases of patient who was served in medical service of Oriental medical school in Dong 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done in Jeong Do Myun Shin An Gun, Jeonnam.

The result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was 1:3.2, and the patients' ages ranged mostly between the fifties and sixties.
2. When we saw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Peon-Zheng(辨證), the syndrom of BiWi system(脾胃系) and Shim system(心系) occupie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aspect of Jang-Bu(臟腑). In the aspect of syndrome, the Shimhyulher(心血虛) was most numerous.
3. In the distribution of chief complaint, each case showed the difference of frequency. In this fact, we could confirm prequent sign.
4. In the distribution of treatment times, 57 cases out of 248 cases was served in medical service more than three times, which amounts to 23.0%. When we saw the effect of treatment in that 57 cases, 46 cases was more than 'good', which amounts to 80.7%.

*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 圓光大學校 全州韓方病院

I. 緒 論

辨證이란 證候를 鑑別하는 것으로 辨은 辨別 分析의 意味이고, 證이라 함은 證據 또는 證候의 意味이다. 즉 疾病의 本質을 明確하게 究明하는 過程으로³⁾ 우선 四診을 통해 收集한 疾病에 관한 各種 資料를 韓醫學의 八綱, 臟腑, 病因 등의 理論을 가지고 辨證分析을 進行하고 이를 통해 辨別된 證에 根據하여 다시 治療原則을 定하고 이에 따른 治法을 施行하는 過程이 辨證施治이며, 辨證에는 八綱辨證, 氣血辨證, 臟腑辨證, 病邪辨證, 六經辨證, 衛氣營血辨證 등이 있다^{1,4)}.

여러 辨證 中에서도 臟腑辨證은 韓醫學의 辨證施治의 重要部分으로 臟象學說의 理論을 運用하여 四診을 통해 收集된 一連의 證候를 分析 歸納하므로써 證候가 속한 臟腑 및 그 陰陽 氣血의 變化를 辨別하는 것이다¹⁾.

疾病의 發生에서 外感이나 內傷을 莫論하고 반드시 臟腑의 生理機能活動의 紊亂을 惹起하므로써 臟腑陰陽氣血의 失調를 일으키게 되는데, 즉 疾病의 發生, 發展, 變化하는 過程 中에서 臟腑가 갖는 正常的인 生理機能의 失調로 內在機理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臟腑의 서로 다른 生理機能에 根據하여 病理狀態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³⁾.

이러한 病理的 變化는 臨床症狀으로 表現되어 지기 때문에 이를 根據로 한 狀態에서 舌診과 脈診을 參照하여 病因을 分析하고 病變의 所在를 把握하므로써 臟腑에 어떠한 變化가 發生하였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臟腑辨證의 主된 內容이다²⁾.

이러한 臟腑辨證은 實際 臨床에서 대단히 有用하게 適用되고 있는 反面, 臟腑辨證의 臨床的 活

用時 效用性에 관한 客觀的인 資料가 지금까지는 貧困한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1994年 8月 16日부터 8月19日까지 全羅南道 新安郡 會島面에서 實施한 東新大學 交 韓醫科大學 醫療奉仕 活動에 來院한 患者들을 對象으로 臟腑辨證에 의한 診療를 施行하여 臨床的인 智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對象 및 方法

1. 對象

1994年 8月 16日부터 8月 19日까지 來院한 患者 248例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治療效果 判定에는 3回 以上 來院한 患者 57例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臟腑辨證 方法

臟腑辨證은 肝, 心, 脾胃, 肺, 腎 등으로 나누어 多發하는 病證을 選定하여 施行하였다.

肝에서는 肝氣鬱結, 肝火上炎, 心에서는 心血虛, 心陰虛, 心火上炎, 脾에서는 脾氣虛, 中氣下陷, 胃氣上逆, 食滯胃院, 肺에서는 肺氣不宣, 肺實肅降, 肺氣陰虛, 腎에서는 腎陰虛, 腎陽虛 등을 選定하였다. 또한 主訴證의 呼訴가 關節疾患이 爲 主인 경우에는 關節痛으로 分類하였다.

3. 辨證別 病證 選定 基準

辨證別 選定 基準이 된 臨床證狀은 다음과 같다¹⁻⁴⁾ (Schemel).

| 辨 證 | 臨 床 證 狀 |
|------|--|
| 肝氣鬱結 | 精神抑鬱 胸脇脹痛 頭暈 目眩 納少 口苦而乾 不寐 脈弦 |
| 肝火上炎 | 性情急躁 易怒 頭痛 眩暈 面紅 目赤 口乾 失眠 心悸 腰痠 腳軟 脈細數 |
| 心血虛 | 面色不華 眩暈 心悸 怔忡 失眠 健忘 等 顯著, 舌質多偏淡 脈細無力 |
| 心陰虛 | 眩暈 心悸 怔忡 外 多夢 心煩 五心煩熱 盜汗 脈多細數 舌質多紅 等 虛熱證 |
| 心火上炎 | 舌碎 心煩 昏迷 舌尖紅 脈數 小便淋赤刺痛 |
| 脾氣虛弱 | 四肢無力 面色不華 腹脹 泄瀉或便疝 脘腹不舒 脈濡 |
| 中氣下陷 | 乏力 脘腹墜脹 食入作痛 脈濡 脫肛 子宮下垂 |
| 胃氣上逆 | 惡心 嘔吐 噯氣 呃逆 眩暈 |
| 食滯胃脘 | 不思飲食 消化不良 食後倒飽 腹痛 胃痛 |
| 肺氣不宣 | 外感風寒의 初期 咳嗽 氣急 發熱 頭痛 |
| 肺失肅絳 | 病邪久留 咳嗽 喘息 爲主 |
| 肺氣陰虛 | 氣陰兩虛證候 乏力神疲 咳嗽 氣短 汗多 兩觀紅潮 舌紅 脈虛數 |
| 腎陰虛 | 眩暈 耳鳴 腰痠 遺精 脈細數 舌質偏紅 |
| 腎陽虛 | 形寒肢冷 腰膝酸軟 陽萎 滑精 小便量多而頻數 脈濡弱 舌質淡胖 |
| 關節痛 | 腰痛 頸項痛 大小關節疼痛 關節腫脹 |

Scheme 1. 辨證別 臨床證狀

4. 辨證別 用藥

辨證別 用藥은 各 病證에서 使用되는 代表處方¹⁻⁴⁾을 選定하였다(Scheme 2).

| 臟腑 | 辨證 | 處方 | 臟腑 | 辨證 | 處方 |
|----|------|---------|----|------|-------|
| 肝 | 肝氣鬱結 | 加味逍遙散 | 肺 | 肺氣不宣 | 參蘇飲 |
| | 肝火上炎 | 當歸龍薈丸 | | 肺失肅絳 | 瀉白散 |
| 心 | 心血虛 | 歸脾湯 | | 肺氣陰虛 | 生脈散 |
| | 心陰虛 | 四物安神湯 | 腎 | 腎陰虛 | 六味地黃丸 |
| | 心火上炎 | 清心蓮子飲 | | 腎陽虛 | 八味地黃丸 |
| 脾胃 | 脾氣虛弱 | 香砂六君子湯 | 其他 | 腰痛 | 五積散 |
| | 中氣下陷 | 補中益氣湯 | | 肢節疼痛 | 靈仙除痛飲 |
| | 胃氣上逆 | 半夏白朮天麻湯 | | 關節腫脹 | 二妙丸 |
| | 食滯胃脘 | 保和丸 | | | |

Scheme 2. 辨證別 用藥

5. 處方內容

使用된 處方은 16가지로 服用의 便利함을 위하여 엑기스 製劑와 丸 製劑로 製造 하였고, 各 處方은 原方^{5,6)}에 適切하게 加味하였으며, 處方內容은 다음과 같다(Scheme 3).

(단위:g)

| 處方名 | 製劑 | 處方內容 |
|---------|------|---|
| 加味逍遙散 | 丸 | 牡丹皮 山梔子 6 當歸 9 白芍藥 白朮 白茯苓 6 柴胡 甘草 薄荷 神麩麥芽 3 |
| 當歸龍薈丸 | 丸 | 當歸 龍膽草 黃栢 黃連 黃芩 山梔子 10 大黃 蘆薈 5 木香 3 蒼朮 香附子 6 草豆蔻 萊菔子 甘草 3 |
| 歸脾湯 | 丸 | 香附子 8 當歸 龍眼肉 白茯苓 山棗仁 白朮 6 人蔘 黃芪 川芎 白芍藥 枸杞子 砂仁 栝子仁 石菖蒲 蘇葉 4 遠志 木香 甘草 2 |
| 四物安神湯 | 丸 | 當歸 白芍 生地黃 熟地黃 6 人蔘 白朮 4 白茯苓 山棗仁 6 黃連 梔子 3 麥門冬 竹茹 6 烏梅 2 山查 白豆蔻 萊菔子 4 |
| 清心蓮子飲 | 丸 | 蓮子 8 人蔘 黃芪 赤茯苓 4 黃芩 車前子 麥門冬 地骨皮 甘草 3 |
| 香砂六君子湯 | 丸 | 香附子 白朮 白茯苓 半夏 陳皮 白豆蔻 厚朴 4 砂仁 人蔘 木香 益智仁 甘草 2 |
| 補中益氣湯 | 丸 | 黃芪 8 人蔘 白朮 當歸 熟地黃 川芎 白芍藥 陳皮 白茯苓 甘草 4 升麻 柴胡 2 山查 神麩 麥芽 4 |
| 半夏白朮天麻湯 | 丸 | 半夏 陳皮 麥芽 6 白朮 神麩 蒼朮 人蔘 黃芪 天麻 白茯苓 澤瀉 4 乾薑 黃栢 2 |
| 保和丸 | 丸 | 白朮 10 陳皮 半夏 赤茯苓 神麩 山查 8 蓮翹 香附子 厚朴 萊菔子 6 枳實 麥芽 4 黃連炒 黃芩炒 1 甘草 6 |
| 蔘蘇飲 | Ext* | 沙蔘 蘇葉 前胡 半夏 葛根 白茯苓 陳皮 桔梗 枳殼 甘草 蘇子 萊菔子 桑白皮 麥門冬 杏仁 貝母 荊芥 4 五味子 2 白朮 4 白芥子 2 |
| 瀉白散 | 丸 | 地骨皮 9 桑白皮 12 甘草 3 硬米 6 桔梗 地殼 6 梔子 薄荷 麥門冬 3 |
| 生脈散加味 | Ext | 麥門冬 8 黃芪 6 人蔘 五味子 白扁豆 4 山查 砂仁 4 |
| 六味地黃丸 | 丸 | 熟地黃 12 山藥 山茱萸 6 白茯苓 牡丹皮 澤瀉 4 蘇木 當歸 川芎 6 山查 砂仁 4 |
| 八味地黃丸 | 丸 | 熟地黃 12 山藥 山茱萸 8 白茯苓 牡丹皮 澤瀉 6 附子 肉桂 2 山查 砂仁 4 |
| 五積散 | Ext | 蒼朮 12 麻黃 陳皮 厚朴 8 桔梗 枳殼 當歸 白芍藥 6 白茯苓 川芎 半夏 白芷 桂枝 甘草 4 續斷 小茴香 6 山查 白豆蔻 防風 4 |
| 靈仙除痛飲 | 丸 | 麻黃 赤芍藥 4 防風 荊芥 羌活 獨活 威靈仙 白芷 蒼朮 黃芩 枳實 桔梗 乾葛 川芎 3 當歸 升麻 甘草 2 牛膝 木瓜 4 全 2 |
| 二妙丸 | 丸 | 蒼朮 黃栢 土南星 16 木瓜 神麩 8 白芷 桃仁 4 防己 草龍膽 3 羌活 桂枝 紅花 甘草 2 |

* Ext: 엑기스

Scheme 3. 處方內容

6. 鍼灸治療

各 病證別로 나타난 主訴症을 爲主로 鍼灸治療를 施行하였으며, 關節疾患이 爲主인 경우에는 關節部位 鍼灸治療를 爲主로 하였다. 治療穴은 明⁷⁾과 楊⁸⁾에 根據하여 選定하였다.

7. 治療效果 判定

治療效果의 判定은 自覺的인 證狀 呼訴와 他覺的인 觀察을 土臺로 하였다 (Scheme 4).

| 評 價 | 判 定 其 準 |
|---------------|--|
| 優秀(Excellent) | 諸 證狀에 대하여 自覺的으로 顯著히 消失되었으며 他覺的인 觀察에서도 好轉된 경우 |
| 良好(Fair) | 諸 證狀에 대하여 自覺的으로 治療前에 비하여 一部の 證狀이 남아 있으며 他覺的인 觀察에서 好轉되었거나 變化가 없는 경우 |
| 好轉(Good) | 諸 證狀에 대하여 治療前에 비하여 自覺的으로 一部分 好轉되고 他覺的인 觀察에서 약간 好轉되었거나 變化가 없는 경우 |
| 無變化(Poor) | 諸 證狀에 대하여 治療前에 비하여 自覺的 證狀에서 好轉이 없고 他覺的 觀察에서도 變化가 없는 경우 |

Scheme 4. 治療效果 判定

Ⅲ . 成 績

1. 性別 및 年齡別 分布

來院한 患者 248例의 性別 分布는 女子가 男子보다 약 3.2배 많았으며, 年齡別 分布는 60代가 83例(33.5%)로 가장 많았고, 全體的으로 50代以上이 78.6%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性別 및 年齡別 分布

| age\sex | Male | Female | Total |
|---------|------|--------|-------|
| - 29 | 7 | 2 | 9 |
| 30 - 39 | 2 | 17 | 19 |
| 40 - 49 | 5 | 19 | 24 |
| 50 - 59 | 17 | 46 | 63 |
| 60 - 69 | 16 | 67 | 83 |
| 70 - 79 | 10 | 33 | 43 |
| 80 - | 1 | 5 | 6 |
| Total | 59 | 189 | 248 |

2. 辨證別 分布

辨證別 分布에서 臟腑上으로 脾胃係가 71例(2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心係가 59例(23.7%)이었으며, 以下 關節痛(16.9%), 腎係(12.5%), 肝係(11.2%), 肺係(7.2%) 등의 順이었다. 病證別로는 心血虛가 29例(11.7%)로 가장 많았고, 食滯胃脘이 25例(10.1%)로 그 다음 順이었다(Table 2).

Table 2. 臟腑辨證別 分布

| 辨 證 | 回 數 | % |
|------|-----|------|
| 肝 | 10 | 4.0 |
| 肝火上炎 | 18 | 7.2 |
| 所計 | 28 | 11.2 |
| 心 | 29 | 11.7 |
| 心陰虛 | 18 | 7.2 |
| 心火上炎 | 12 | 4.8 |
| 所計 | 59 | 23.7 |

| | | | |
|----|------|-----|-------|
| 脾胃 | 脾氣虛弱 | 18 | 7.3 |
| | 中氣下陷 | 15 | 6.0 |
| | 胃氣上逆 | 3 | 0.2 |
| | 食滯胃脘 | 25 | 10.1 |
| | 所計 | 71 | 28.5 |
| 肺 | 肺氣不宣 | 5 | 2.0 |
| | 肺實肅降 | 8 | 3.2 |
| | 肺氣陰虛 | 5 | 2.0 |
| | 所計 | 18 | 7.2 |
| 腎 | 腎陰虛 | 18 | 7.2 |
| | 腎陽虛 | 13 | 5.3 |
| | 所計 | 31 | 12.5 |
| 其他 | 關節痛 | 42 | 16.9 |
| | 總計 | 248 | 100.0 |

3. 各辨證別 主訴證別 分布

1) 肝氣鬱結

肝氣鬱結 10例 中 精神抑鬱과 消化不良이 各 5例(50.0%)로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胸脇 脹痛 및 便秘 등의 順이었다(Table 3).

Table 3. 肝氣鬱結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精神抑鬱 | 5 | 50.0 |
| 消化不良 | 5 | 50.0 |
| 胸脇脹痛 | 4 | 40.0 |
| 便秘 | 4 | 40.0 |
| 眩暈 | 3 | 30.0 |
| 口苦 | 3 | 30.0 |
| 頭痛 | 3 | 30.0 |
| 生理痛 | 3 | 30.0 |
| 脈弦 | 2 | 20.0 |
| 心悸 | 2 | 20.0 |
| 虛熱上衝 | 2 | 20.0 |
| 梅核氣 | 2 | 20.0 |

2) 肝火上炎

肝火上炎 18例 中 性情躁急을 11例(64.7%)로 가장 많이 呼訴하였고, 다음으로 頭痛, 眩暈, 口乾 및 面紅 등을 主訴證으로 呼訴하였다(Table 4).

Table 4. 肝火上炎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性情躁急 | 11 | 64.7 |
| 頭痛 | 9 | 47.1 |
| 眩暈 | 9 | 47.1 |
| 口乾 | 8 | 47.1 |
| 面紅 | 7 | 41.2 |
| 腰痠 | 6 | 35.3 |
| 脈細數 | 6 | 35.3 |
| 利尿 | 5 | 29.4 |
| 心悸 | 5 | 29.4 |
| 目赤 | 4 | 23.5 |
| 脚軟 | 4 | 23.5 |
| 虛熱上衝 | 4 | 23.5 |
| 失眠 | 3 | 17.6 |
| 其他 | 1 | 5.9 |

3) 心血虛

心血虛 29例 中 眩暈을 26例(89.7%)로 가장 많이 呼訴하였고, 다음으로 頭痛, 脈細無力 및 心悸 등을 主訴證으로 呼訴하였다(Table 5).

Table 5. 心血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 | | |
|-------|----|------|
| 眩暈 | 26 | 89.7 |
| 頭痛 | 17 | 58.6 |
| 脈細無力 | 15 | 51.7 |
| 心悸 | 14 | 48.3 |
| 面色不和 | 9 | 27.6 |
| 胸悶 | 7 | 24.1 |
| 食慾不振 | 6 | 20.7 |
| 虛熱上衝 | 5 | 17.2 |
| 失眠 | 4 | 13.8 |
| 口乾 | 4 | 13.8 |
| 健忘 | 3 | 10.3 |
| 怔忡 | 2 | 6.9 |
| 舌質多偏淡 | 2 | 6.9 |
| 其他 | 1 | 3.4 |

4)心陰虛

心陰虛 18例 中 心悸, 盜汗 및 脈多細數이 各 10例(55.6%)로 頻度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眩暈, 消化不良 및 惡心煩熱 등을 呼訴하였다 (Table 6).

Table 6. 心陰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心悸 | 10 | 55.6 |
| 盜汗 | 10 | 55.6 |
| 脈多細數 | 10 | 55.6 |
| 眩暈 | 9 | 44.4 |
| 消化不良 | 8 | 44.4 |
| 惡心煩熱 | 7 | 38.9 |
| 頭痛 | 6 | 33.3 |
| 心煩 | 5 | 27.8 |

| | | |
|------|---|------|
| 怔忡 | 5 | 27.8 |
| 口乾 | 4 | 22.2 |
| 失眠 | 4 | 22.2 |
| 多夢 | 2 | 11.1 |
| 舌質多紅 | 2 | 11.1 |
| 胸悶 | 2 | 11.1 |
| 其他 | 3 | 16.7 |

5)心火上炎

心火上炎 12例 中 心煩을 11例(91.7%)로 가장 많이 呼訴하였고, 다음으로는 脈數, 口乾 등의 順이었다(Table 7).

Table 7. 心火上炎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心煩 | 11 | 91.7 |
| 脈數 | 7 | 58.3 |
| 口乾 | 5 | 41.7 |
| 舌尖紅 | 4 | 33.3 |
| 小便淋赤刺痛 | 4 | 33.3 |
| 眩暈 | 4 | 33.3 |
| 頭痛 | 4 | 33.3 |
| 熱上衝 | 3 | 25.0 |
| 胸悶 | 3 | 25.0 |
| 舌碎 | 2 | 16.7 |
| 心悸 | 2 | 16.7 |
| 其他 | 1 | 8.3 |

6)脾氣虛弱

脾氣虛弱 18例 中 腹脹과 脈濡가 各 13例(72.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食慾不振, 腕腹不舒, 泄瀉或便糖 및 四肢無力 등의 順이었다

(Table 8)

Table 8. 脾氣虛弱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腹脹 | 13 | 72.2 |
| 脈濡 | 13 | 72.2 |
| 食慾不振 | 12 | 66.7 |
| 脘腹不舒 | 11 | 61.1 |
| 泄瀉感便瘡 | 10 | 55.6 |
| 四肢無力 | 8 | 44.4 |
| 面色不和 | 3 | 16.7 |
| 眩暈 | 3 | 16.7 |
| 頭痛 | 2 | 11.1 |

7) 中氣下陷

中氣下陷 15例 中 乏力이 13例(86.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脈濡, 脘腹墜脹, 眩暈, 食入作痛 및 食慾不振 등의 順이었다(Table 9).

Table 9. 中氣下陷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乏力 | 13 | 86.7 |
| 脈濡 | 9 | 60.0 |
| 脘腹墜脹 | 7 | 46.7 |
| 眩暈 | 7 | 46.7 |
| 食入作痛 | 5 | 33.3 |
| 食慾不振 | 5 | 33.3 |
| 口乾 | 4 | 26.7 |
| 頭痛 | 3 | 20.0 |
| 脫肛 | 2 | 13.3 |
| 帶下 | 2 | 13.3 |
| 其他 | 2 | 13.3 |

8) 胃氣上逆

胃氣上逆 13例 中 惡心이 12例(9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眩暈, 嘔吐, 頭痛 및 食慾不振 등의 順이었다(Table 10).

Table 10. 胃氣上逆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惡心 | 12 | 92.3 |
| 眩暈 | 7 | 53.8 |
| 嘔吐 | 5 | 38.5 |
| 頭痛 | 5 | 38.5 |
| 食慾不振 | 5 | 38.5 |
| 眼昏 | 3 | 23.1 |
| 口乾 | 3 | 23.1 |
| 噫氣 | 2 | 15.4 |
| 其他 | 3 | 23.1 |

9) 食滯胃脘

食滯胃脘 25例 中 消化不良이 15例(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食後倒飽, 腹痛, 不思飲食 및 胃痛 등의 順이었다(Table 11).

Table 11. 食滯胃脘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消化不良 | 15 | 60.0 |
| 食後倒飽 | 13 | 52.0 |
| 腹痛 | 13 | 52.0 |
| 不思飲食 | 9 | 36.0 |
| 胃痛 | 9 | 36.0 |
| 四肢無力 | 5 | 20.0 |
| 頭痛 | 5 | 20.0 |
| 眩暈 | 3 | 12.0 |

| | | |
|-----|---|------|
| 便秘 | 2 | 8.0 |
| 四肢冷 | 2 | 8.0 |
| 其他 | 4 | 16.0 |

10) 肺氣不宣

肺氣不宣 5例 中 咳嗽와 咯痰을 各 3例(60.0%)로 가장 많이 呼訴하였고, 다음으로 頭痛, 發熱, 咽喉痛 및 脈浮 등이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肺氣不宣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咳嗽 | 3 | 60.0 |
| 咯痰 | 3 | 60.0 |
| 頭痛 | 2 | 40.0 |
| 發熱 | 2 | 40.0 |
| 咽喉痛 | 2 | 40.0 |
| 脈浮 | 2 | 40.0 |
| 其他 | 3 | 60.0 |

11) 肺實肅降

肺實肅降 8例 中 咳嗽와 喘息이 各 7例(87.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咯痰, 心煩 등의 順이었다(Table 13).

Table 13. 肺實肅降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咳嗽 | 7 | 87.5 |
| 喘息 | 7 | 87.5 |
| 咯痰 | 4 | 50.0 |
| 心煩 | 2 | 25.0 |
| 其他 | 5 | 62.5 |

12) 肺氣陰虛

肺氣陰虛 5例 中 氣短은 모든 例(5例:100.0%)에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汗多, 脈虛數 등의 順이었다(Table 14).

Table 14. 肺氣陰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氣短 | 5 | 100.0 |
| 汗多 | 4 | 80.0 |
| 脈虛數 | 4 | 80.0 |
| 乏力神疲 | 3 | 60.0 |
| 舌紅 | 3 | 60.0 |
| 咳嗽 | 2 | 40.0 |
| 兩顴紅潮 | 2 | 40.0 |
| 咯痰 | 2 | 40.0 |
| 口渴 | 2 | 40.0 |
| 其他 | 3 | 60.0 |

13) 腎陰虛

腎陰虛 18例 中 腰痠이 15例(83.3%), 膝痛이 13例(72.2%)로 높은 頻度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眩暈, 耳鳴, 脈細數 및 全身無力 등의 順이었다(Table 15).

Table 15. 腎陰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腰痠 | 15 | 83.3 |
| 膝痛 | 13 | 72.2 |
| 眩暈 | 9 | 50.0 |
| 耳鳴 | 9 | 50.0 |
| 脈細數 | 8 | 44.4 |
| 全身無力 | 8 | 44.4 |

| | | |
|------|---|------|
| 小便頻數 | 4 | 22.2 |
| 頭痛 | 3 | 16.7 |
| 口乾 | 3 | 16.7 |
| 舌質偏紅 | 2 | 11.1 |
| 口渴 | 2 | 11.1 |
| 食慾不振 | 2 | 11.1 |
| 其他 | 4 | 22.2 |

14) 腎陽虛

腎陽虛 13例 中 腰膝酸軟이 12例(92.3%), 形寒肢冷이 10例(76.9%)로 높은 頻度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小便頻數, 脈濡弱, 眩暈 등의 順이었다(Table 16).

Table 16. 腎陽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腰膝酸軟 | 12 | 92.3 |
| 形寒肢冷 | 10 | 76.9 |
| 小便頻數 | 6 | 46.1 |
| 脈濡弱 | 6 | 46.1 |
| 眩暈 | 3 | 23.1 |
| 口渴 | 2 | 15.4 |
| 舌質淡胖 | 2 | 15.4 |
| 其他 | 8 | 61.5 |

15. 關節痛

關節痛 42例 中 腰痛과 膝痛이 各 20例(47.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肢節疼痛, 關節腫脹 등의 順이었다(Table 17).

Table 17. 關節痛에서 主訴證別 分布

| 主訴證 | 回數 | % |
|------|----|------|
| 腰痛 | 20 | 47.6 |
| 膝痛 | 20 | 47.6 |
| 肢節疼痛 | 18 | 42.9 |
| 關節腫脹 | 8 | 19.4 |
| 頭痛 | 5 | 11.9 |
| 食慾不振 | 5 | 11.9 |
| 全身痛 | 4 | 9.5 |
| 頸項痛 | 3 | 7.1 |
| 眩暈 | 2 | 4.8 |
| 四肢冷 | 2 | 4.8 |
| 其他 | 3 | 7.1 |

4. 治療回數別 分布

4日間の 診療期間 中 治療回數別 分布에서 1회가 114例(46.0%), 2회가 77例(31.0%), 3회가 44例(17.7%), 4회가 13例(5.3%)를 차지하였다 (Table 18).

Table 18. 治療回數別 分布

| Times | Number | % |
|-------|--------|-------|
| 1 | 114 | 46.0 |
| 2 | 77 | 31.0 |
| 3 | 44 | 17.7 |
| 4 | 13 | 5.3 |
| Total | 248 | 100.0 |

5. 治療成績別 分布

診療患者 248例 中 3回 以上 來院한 57例를 對象으로 治療成績을 調査한 結果 優秀가 3例(5.3%), 良好가 21例(36.8%), 好轉이 22例(38.6%)로 나타나 全體的으로 好轉 以上이 80.7%를

차지하였다(Table 19).

Table 19. 治療成績別 分布

| Assessment | Number | % |
|------------|--------|-------|
| Excellent | 3 | 5.3 |
| Fair | 21 | 36.8 |
| Good | 22 | 38.6 |
| Poor | 11 | 19.3 |
| Total | 57 | 100.0 |

IV. 考 察

韓醫學에서 臟腑와 관련된 理論을 臟象學說이라 한다. 臟은 臟腑를 意味하고, 象은 人體臟腑의 正常機能과 病理變化가 發生했을 때 外部에 反映되는 徵象을 뜻하는데 이는 形體組織과 證候面에서 볼 수 있으며, 內在하는 臟腑機能의 變化를 反映하게 됨으로써 人體의 健康을 判斷하고 疾病을 診斷하는 根據가 됨을 說明하는 特徵있는 學說인 것이다. 이와같은 臟象學說의 理論을 運用하여 四診을 통해 收集된 一連의 證候를 分析 歸納하므로써 證候가 속한 臟腑 및 그 陰陽 氣血의 變化를 辨別하고, 나아가 適切한 治療方法을 選擇하여 關聯되는 臟腑의 陰陽 氣血을 調整하고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回復시켜 疾病을 治愈하는 過程이 臟腑辨證인 것이다¹⁾.

韓醫學에서 常用하는 辨證方法으로는 臟腑辨證 외에 八綱辨證, 六經辨證, 衛氣榮血辨證, 三焦辨證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內容中 難解한 面이 많아 쉽게 理解할 수 없어 適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辨證方法들은 나뉠대로의 特徵과 應用範圍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臟腑經絡의 理論을

基礎로 하고 있다. 따라서 外感熱性病이나 內傷雜病을 莫論하고 모든 疾病은 臟腑經絡上에 發生한 病變을 基礎로 하여 마침내 臟腑病變上으로 歸着되어지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辨證方法들은 모두가 臟腑學說로써 그의 理論的 基礎를 삼고 있으며, 六經辨證이나 衛氣榮血辨證, 三焦辨證 등은 臟腑辨證이 多樣的 類型의 疾病 가운데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應用 發展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와같은 臟腑辨證은 臟腑學說과의 直接的인 關聯下에 臨床上 가장 널리 應用되어지는 辨證方法으로서²⁾, 著者는 이를 實際 臨床에 適用한 바 다음과 같은 成績 및 結果를 얻었다.

診療期間 동안 來院한 患者는 總 248例이었으며, 性別 分布는 女子가 189例, 男子가 57例로 女子가 男子보다 약 3.2배 많았으며, 年齡別 分布는 60代가 83例(33.5%)로 가장 많았고, 50代가 63例(25.4%), 70代가 43例(17.3%)의 順이었으며, 全體적으로 50代 以上이 78.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性別 및 年齡別 分布는 年齡層이 높을수록 韓方을 選好한다는 것과 地域적으로 農漁村에 속하기에 젊은 年齡層의 人口가 相對적으로 적다는 것에 起因한다고 思慮된다.

辨證別 分布에서 臟腑上으로 脾胃係가 71例(28.5%), 心系가 59例(23.7%)로 높은 頻度를 나타내어 脾胃疾患 및 心系疾患의 發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關節痛(16.9%), 腎係(12.5%), 肝係(11.2%), 肺係(7.2%)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病證別로는 心血虛가 29例(11.7%)로 가장 많았고, 心血虛는 中年層 以上の 婦女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性別, 年齡別 分布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다음으로는 食滯胃脘, 肝火

上炎, 心陰虛, 脾氣虛弱, 腎陰虛 등의 順으로 나타나서, 脾胃, 肝, 心 및 腎疾患이 多發함을 나타내었다. 肺系 病證은 季節的인 影響으로 頻도가 相對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各 病證을 主訴症別로 觀察한 結果 다음과 같았다.

肝系 病證에서 肝氣鬱結 10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精神抑鬱, 消化不良, 胸脇脹痛, 便秘 등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肝火上炎 18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性情躁急, 頭痛, 眩暈, 口乾 및 面紅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心系 病證에서 心血虛 29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眩暈, 頭痛, 脈細無力, 心悸 등의 順으로 나타났고, 心陰虛 18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心悸, 盜汗, 脈多細數, 眩暈, 消化不良, 惡心煩熱 등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心火上炎 12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心煩, 脈數, 口乾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脾胃系 病證에서 脾氣虛弱 18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腹脹, 脈濡, 食慾不振, 脘腹不舒, 泄瀉或便糖, 四肢無力 등의 順으로 나타났고, 中氣下陷 15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乏力, 脈濡, 脘腹墜脹, 眩暈, 食入作痛, 食慾不振 등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胃氣上逆 13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惡心, 眩暈, 嘔吐, 頭痛, 食慾不振 등의 順으로 나타났고, 食滯胃脘 25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消化不良, 食後倒飽, 腹痛, 不思飲食, 胃痛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肺系 病證에서 肺氣不宣 5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咳嗽, 咯痰, 頭痛, 發熱, 咽喉痛, 脈浮 등의 順으로 나타났고, 肺實肅降 8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咳嗽, 喘息, 咯痰, 心煩 등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肺氣陰虛 5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氣

短, 汗多, 脈虛數 등의 順이었다(Table 14).

腎系 病證에서 腎陰虛 18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腰痠, 膝痛, 眩暈, 耳鳴, 脈細數, 全身無力 등의 順으로 나타났고, 腎陽虛 13例 中 臨床 症狀의 頻도는 腰膝酸軟, 形寒肢冷, 小便頻數, 脈濡弱, 眩暈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以上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各 病證의 여러 症狀들 가운데 實際 臨床的인 觀察에서는 相對적으로 높은 頻도를 보이는 臨床 症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臨床 症狀를 辨別하는 辨證을 施行하는 過程에서 이를 適切히 應用하므로써 病證의 診斷에 實際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思慮된다.

한편 關節痛을 爲主로 呼訴하는 경우 이를 臟腑疾患 外에 關節痛으로 分離하여 觀察한 結果 關節痛 42例 中 腰痛과 膝痛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肢節疼痛, 關節腫脹 등의 順이었다.

이와같은 辨證에 根據하여 各 辨證에서 使用되는 代表的인 處方¹⁻⁶⁾을 準備하였으며, 散劑의 服用上 不便을 피하기 위해서 丸 및 엑기스로 製劑하여 各 病證別로 投與하였다. 또한 各 病證別로 가장 크게 呼訴하는 主訴症을 爲主로 選穴^{7,8)}하여 鍼灸治療를 施行하였다.

4日間의 診療期間 中 治療回數別 分布에서 1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回, 3回, 4回의 順이었으며, 2回 以上 來院한 경우가 全體의 54.0%를 나타내었고, 3回 以上은 23.0%를 차지하였다.

診療患者 248例 中 3回 以上 來院한 57例를 對象으로 治療成績을 調査한 結果, 優秀가 3例(5.3%), 良好가 21例(36.8%), 好轉이 22例(38.6%)로 나타나 全體적으로 好轉 以上이 80.7%를 차지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醫學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지는 理論上的 臟象學說에 根據한 臟腑辨證에 의하여 診療를 積極的으로 施行한 各病證마다 一定한 主訴症의 差異를 알아볼 수 있었고, 이를 理論的인 體系와 聯關시켜 實際 臨床에 活用한다면 疾病에 대하여 韓醫學的으로 더욱 密接히 接近할 수 있다고 思慮된다.

V. 結 論

1994年 8月 16일부터 8月 19일까지 全羅南道 新安郡 曾島面에서 實施한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療奉仕活動에 來院한 患者 248例를 對象으로 臟腑辨證에 의한 診療를 施行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男女比는 1:3.2로 女子가 많았으며, 50代와 60代가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였다.

2. 辨證別 分布에서 臟腑上으로는 脾胃係와 心系的 病證이 많았으며, 病證上으로는 心血虛가 가장 많았다.

3. 各病證의 主訴症別 分布에서 各臨床症狀은 頻度の 差異를 나타냄으로써 多發症狀을 確認할 수 있었다.

4. 治療回數別 分布는 3回 以上이 57例(23.

0%)로 나타났으며, 이를 對象으로 한 治療成績에서는 好轉以上이 80.7%를 차지하였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選編 :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pp.159-191, 287-321, 1990.
2. 金完熙, 崔達永 共編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p.1-48, 379-391, 1985.
3. 文溶典, 安圭錫, 崔昇勳 共編 :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pp.318-355, 1990.
4. 朴英培, 金泰熙 編著 : 漢方診斷學 辨證, 서울, 成輔社, pp.58-92, 1986.
5. 申載鏞 編著 :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pp.27, 32, 46, 60, 100, 105, 118, 137, 148, 163, 193, 225, 296, 1988.
6. 李尙仁, 辛民教 編著 : 漢藥臨床應用, 서울, 成輔社, pp.85, 135, 1986.
7. 明順培, 楊順益 : 鍼灸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139-222, 1987.
8. 楊甲三 :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05-729, 1989.